

회원들, 역사적인 대회에 감명 받다

2004년 9월 12일에 개최된 역사적인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위성 방송을 통해 네덜란드 안틸레스와 아루바를 포함한 여러 섬과 베네수엘라 전역에 있는 약 35개의 집회소에 스테이크와 지방부 대회를 위해 모인 23,000명 이상의 말일성도들에게 말씀을 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칠십인 정원회의 에이치 앨드리지 길레스피 장로도 대회에서 말씀을 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어렸을 적 자신은 북극성을 찾기 위해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저는 평생 동안 남아 있게 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확고 부동한 것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불변하는 복음 진리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했다.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는 교회 본부로부터 위성 방송을 수신하기 전에 기도, 찬송 및 스테이크 행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대회를 시작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각 조직이 찬송과 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베네수엘라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이 방송이 그 국가의 회원들에게 중대한 사건이 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베네수엘라 발렌치아 칸델리아 스테이크 라 이사벨리카 와드에서 최근에 개종한 13세 된 마르셀 파리아스는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고 했다. “그 분의 말씀에서 그 분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우리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대한 그 분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가 신앙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예언자가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안



사진 제공: INTELLECTUAL RESERVE 보관

힝클리 대관장이 위성 방송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베네수엘라 카리카스 팔로 베르데 스테이크 팔로 베르데 와드의 홀리오 마르케스 감독은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님이 북극성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대회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확고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라고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 크루스 스테이크 로스 알토스 지부의 데이비드 무뇨스는 말했다.

베네수엘라 발렌치아 칸델리아 스테이크 토쿠이트 와드의 프레디 구에데스는 “이 위성 방송은 베네수엘라 교회 역사에서 유일하고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플라마르 지방부장인 알렉시스 우리에페로는 이 대회가 “예언자와 다른 지도자들이 베네수엘라를 주시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준 대회였다고 말했다. ■

봉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성전장과 메이트론들

최 근 52명의 새로운 성전장들이 아내와 더불어 임기 3년의 봉사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부부는 2004년 11월 1일부터 봉사를 시작했다.

나이지리아 아바

제리 브이 커크 성전장과 조안 오 커크
자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루이스 그로에뉴알드 성전장과 리나
그로에뉴알드 자매

네바다 리노

오리스 로렌조 코브리지 성전장과 엘리스
에이 코브리지 자매

네브래스카 윈터쿼터스

로버트 비 허버트슨 성전장과 렌 허버트슨
자매

노바스코샤 핼리팩스

바이런 로널드 크리스티슨 성전장과
제믈라 크리스티슨 자매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그래디 린 반즈 성전장과 진비브 비 반즈
자매

뉴욕 맨해튼

존 로저 스토운 성전장과 헬렌 비 스토운
자매

뉴질랜드 해밀턴

제임즈 안토니 몰리 성전장과 테푸아 몰리
자매

덴마크 코펜하겐

디 발렌타인 제이콥스 성전장과 케이 피
제이콥스 자매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에드워드 해리 피터슨 성전장과 조안 에이
피터슨 자매

독일 프랑크푸르트

리차드 올리 팻처 성전장과
캐스린 엠 팻처 자매

멕시코 과달라하라

로버트 새비즈 가비타스
성전장과 캐스린
가비타스 자매

멕시코 메리다

칼 라본 콜 성전장과 진
에스 콜 자매

멕시코 몬테레이

헤수스 산토스 성전장과 아델파 에이
산토스 자매

멕시코 콜로니아 후아레스 치와와

존 브렌트넬 로빈슨 성전장과 엘렌 엘
로빈슨 자매

멕시코 탐피코

리카르도 토레스 성전장과 마리아 토레스
자매

멕시코 투스틀라 구티에레스

윌버 테인 와그너 성전장과 카렐 알
와그너 자매

멕시코 후아레스 시우다드

애쉬턴 허비 테일러 성전장과 나오미
에이치 테일러 자매

미네소타 세인트폴

토마스 앨버트 홀트 성전장과 보니 에이
홀트 자매

미시간 디트로이트

데이비드 레이 슈츠 성전장과 보니 엘
슈츠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데이비드 크레이그 홉스 성전장과
다얀 티 홉스 자매

볼리비아 코차밤바

데이비드 에반스 헤이우드 성전장과
실비아 엘 헤이우드 자매



일리노이 나무 성전은 새로운 성전장과 메이트론이 지명된 많은 성전 가운데 하나이다.

알래스카 앵커리지

개리 이 콕스 성전장과 조이스 에스 콕스
자매

앨라배마 버밍햄

존 라이드 자일즈 성전장과 디앤 에이치
자일즈 자매

앨버타 에드먼턴

로버트 스티븐 패터슨 성전장과 벨바 이
패터슨 자매

오리건 메드포드

진 “비” 웰링 성전장과 캐롤 엘 웰링 자매

오리건 포틀랜드

니콜라스 피어리 콜린스 성전장과 수잔 알
콜린스 자매

오하이오 콜럼버스

돈 리 토블러 성전장과 달린 티 토블러
자매

워싱턴 스포캔

파렐 뉴렌 빈스 성전장과 조이즈 엘 빈스
자매

워싱턴 시애틀

덴젤 놀런 와이저 성전장과 비벌리 엠
와이저 자매

워싱턴 켈럼비아 리버

얼 제이 휠라이트 성전장과 라올라
휠라이트 자매

유타 세인트조지

해롤드 해리스 히스키 성전장과 모나 이 히스키 자매

유타 프로보

칼 윌리엄 베이컨 성전장과 캐롤린 에스 베이컨 자매

일리노이 나부

데이비드 비트너 워스린 성전장과 앤 워스린 자매

일리노이 시카고

글렌 앨런 헨스 성전장과 베티 제이 헨스 자매

잉글랜드 런던

로우랜드 에드워드 엘비지 성전장과 바버라 제이 엘비지 자매

조지아 애틀랜타

짐 데이비드 에차드 성전장과 케이 캐롤린 에차드 자매

중국 홍콩

궈 유엔 성전장과 후이 후이(폴로라) 타이 자매

칠레 산티아고

홀리오 움베르토 하라미요 성전장과 마리아 하라미요 자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리차드 모리스 앤드루스 성전장과 달린 에이 앤드루스 자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찰스 앨런 크로프 성전장과 앤 크로프 자매

켄터키 루이스빌

제임스 웨인 헨스 성전장과 캐린 엘 헨스 자매

콜로라도 덴버

그랜트 엘라그랜 마쉬 성전장과 에디스 알 마쉬 자매

테네시 내슈빌

빌리 조 이브스 성전장과 마리안 이브스 자매

테네시 멤피스

존 리차드 토더슨 성전장과 캐롤 케이 토더슨 자매

텍사스 댈러스

필립 히치본 베셀리브레 성전장과 페기 제이 베셀리브레 자매

텍사스 러벅

토마스 스코트 헨드릭스 성전장과 마리안 헨드릭스 자매

페루 리마

로이든 존 그레이드 성전장과 레베카 비 그레이드 자매

플로리다 올란드

블레인 더블류 존슨 성전장과 지네트 존슨 자매

하와이 라이에

웨인 옥타브 우센바흐 성전장과 버니스 오 우센바흐 자매

호주 멜버른

그레임 에드워드 크레이 성전장과 마리 엘 크레이 자매

호주 퍼스

존 안토니 그린세리 성전장과 비키 티 자매 ■

영구 교육 기금: 계속되는 영감 받은 프로그램

패트리샤 에스 노우드, 처치 매거진

칠레 오소르노의 로드리고 폰트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의 인생은 힝클리 대관장이 3년 전에 교회의 영구 교육 기금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한 그대로 바뀌었다.

기금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크게 향상된 기회를 통해, 그들은 자신과 조상들이 오랫동안 겪어 왔던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서 봉사할 것입니다. 고국에서 이 위대한 사업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손을 내밀어 들어올릴

시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2쪽)

폰트 형제는 칠레 산티아고 서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선교부 사무실에서 일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행정직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폰트 형제는 그 일을 좋아했으나,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한 발표가 있기 전인 2000년에 귀환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귀환 선교사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은 소망은 있으나 자신과 조상들이 경험해 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없다.

영구 교육 기금은 미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를 기금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및 필리핀 5개국으로 제한했었다. 지금은 다음과 같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나라로 확장되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인도, 자메이카, 몽골, 파라과이, 남아프리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 등.

힝클리 대관장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기금으로 이미 1,200

명의 말일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했다. 2004년 10월말 현재 1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더욱 훌륭하게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위나 자격증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그들이 십일조와 헌금을 바침으로써 오는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성공을 위한 계획”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듣고 과정을 거친 후에, 폰트 형제는 영구 교육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것을 신청했으며 재정 및 경영 분야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현재는 아내와 갓난 아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지 3년째가 된다. 그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 칠레 오소르노 스테이크 안틸란카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폰트 감독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교육 덕분에 아내와 더불어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었던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기도 전에 좋은 취업의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학생들의 미래에서 성공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졸업을 하기도 전에 그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현재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국가의 참여자들은 졸업한 후에 평균 급여가 400퍼센트나 증가한다. 영구 교육 기금을 받는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하는 동안 지역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발전할 기회를 갖고 있다.

영구 교육 기금은 젊은 말일성도들이 교육을 받도록 돕는 것 이외에도 다른 목표가 있다. 기금은 15,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돕는 반면, 기금에 참여하는 전세계의 수많은 회원들에게도 축복을 가져다주고 있다.

“매일, 매주, ... 작은 액수가 모여 기금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과 희생의 발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기금이 전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희생의 정신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영구 교육 기금 관리 책임자인 존 케이카머 장로는 말했다. (“영구 교육 기금: 희망의 밝은 빛”, *리아호나*, 2004년 1월호, 38쪽)

많은 회원들이 지역 신권 지도자들을 통해 기금을 기부했다. 지도자들은 초등학교 어린이의 적은 금액에서부터 좀더 부유한 기증자의 많은 금액에 이르기까지 기금을 받았다. 일

부 회원들은 매달 내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위한 장기 적금이나 집 개조 계획을 포기하기도 했다. 주님은 모든 희생을 알고 계신다.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많은 적든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기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위대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2쪽)

이 영감받은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회원들은 빈곤을 떨쳐 버리고, 복음 안에서 발전하며,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돕는다. 그들이야말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로드리고 폰트 감독과 그의 가족은 교회의 영구 교육 기금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교회, 허리케인 구호 물자 제공

2004년 8월과 9월에 네 개의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 지역과 미국 일부 지역을 통과하면서 가정과 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1,700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를 냈다. 허리케인 찰리, 프란시스, 이반 및 진이 지나가고 난 후에 교회와 회원들은 다른 여러 종파의 사람들을 위해 즉각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교회는 680,000킬로그램의 식량과 350,000개의 위생 키트, 400,000여 점의 의류 등 트럭 70대 분의 물품을 보냈다. 회원들이 청소와 구조 작업에 들인 노동력은 310,000시간에 달한다.

허리케인 찰리

8월 14일 금요일, 허리케인 찰리는 최대 풍속이 시속 290킬로미터에 달하는 4등급 허리케인으로 미국 플로리다 남서부를 강타했다. 최소한 16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약 1,500명이 집을 잃었다. 수백만 가정에 2주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태풍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교회 회원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소수가 집을 잃었고 최소 일곱 개의 집회소가 피해를 입었다.

교회와 회원들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구조 작업에 참여하거나 도우면서 즉각 대처했다.

허리케인 프란시스

시속 200킬로미터의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프란시스는 찰리가 지나간 지 불과 수 주 후에 바하마를 거쳐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열네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그 중에 교회 회원은 없었다. 태풍이 플로리다를 강타한 후에 3백만 이상의 가정에 전기

가 공급되지 않았고 약 53,000명이 긴급 대피소에 머물렀다. 10여 개의 교회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나 플로리다 주 올란도 성전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많은 재난 구조 단체들은 이미 자원이 고갈된 채로 아직도 허리케인 찰리의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나, 교회는 재난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집회소에 임시 감독의 창고를 설치했다. 물품들은 유타 주와 조지아 주로부터 수송되었다. 약 100,000개의 위생 키트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배부되었으며, 회원들은 계속해서 지역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허리케인 이반

9월 7일, 4등급 허리케인 이반은 작은 섬 그레나다를 휩쓸었다. 시속 230킬로미터의

강풍은 섬에 있는 건물의 90퍼센트 이상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었다. 최소한 39명이 사망했으며, 40,000명 이상이 임시 대피소에 수용되었다.

태풍은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및 세인트 빈센트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세력이 강화되어 자메이카에 도착했을 때는 시속 260킬로미터의 강풍을 동반한 5등급 태풍이 되었다. 자메이카에서는 15명의 사망자와 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음날 허리케인 이반은 태풍의 눈이 해안을 지나면서 케이맨 군도에 심한 피해를 입혔다. 두 명이 사망하고 섬에 있는 집 가운데 50퍼센트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태풍은 앨라배마 주와 플로리다 주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미국에서는 이반과 그로



허리케인이 동반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 플로리다에 있는 사진 속의 집을 포함하여 여러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인해 생긴 토네이도로 52명이 사망했으며, 440,000 가구에 여러 날 동안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

피해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회원들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

교회와 회원들은 다시 한번 구조에 응했다.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및 텍사스주에 있는 감독의 창고에서 위생 키트, 통조림 식품, 상자에 담긴 식품 및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기증품들이 전달되었다. 물품들은 또한 그레나다, 자메이카 및 그랜드 케이맨 등으로 공수되었다.

플로리다에서는 신권 지도자들이 주요 자원 구조 활동을 협의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왔다. 집회소는 대피소가 되거나 교회에서 온 구조물자뿐 아니라, 다른 구조 단체에서 온 물자들을 분배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허리케인 진

카리브 지역은 허리케인 이반의 피해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다시 허리케인 진의 피해를 입었다. 9월 18일, 태풍은 아이티를 강타했으며, 그것은 태풍이 강타한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보도 당시, 히스파놀라 섬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1,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90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망자들 가운데는 교회 회원인 70대 노인이 있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봉사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의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 1년 전에 철수하고 없었다.

고나이브, 포트 드 파 및 테레누브 시에서는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800명의 교회 회원들이 대피했다. 가장 큰 피해는 고나이브에서 있었으며, 태풍이 상륙한 후 여러 날 동안 지역의 80퍼센트가 물에 잠겨 있었다. 도시에 있는 집회소는 1미터 가량의 물과 진흙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마르 시에서는 약 150명의 회원들이 현지 집회소 옆에 설치한 천막에서 생활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구조 물품 분배와 금식 현금으로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었다. 열여섯 팔레트 분의 필수 응급 물품을 아이티로 공수했으며, 교회 인도주의 센터에서는 의류, 신발, 담요 및 위생 키트 등 40피트 컨테이너 13개를 보냈다.

적십자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난 지도원을 요청했다. 교회 복지 봉사회는 10명의 지도원을 파견하여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했다.

아이티를 황폐케 한 뒤, 태풍은 9월 26일에 플로리다에 상륙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주도 한 계절에 네 개의 허리케인이 지나간 일은 지난 100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8월 13일에 찰리, 9월 5일에 프란시스, 9월 16일에 있었던 이반에 이어 진은 두 달 동안 플로리다를 강타한 네 번째 태풍이었다.

많은 플로리다 도시들은 여러 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다. 미국에서 네 개의 태풍으로 사망한 사람은 91명이다. ■



허리케인으로 인한 바람과 파도는 플로리다에 있는 이 가옥을 포함하여 많은 건물을 파괴했다.

세계 지도자들, 교회 연구를 위해 유타 방문

세 계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역에 있는 종교가 발전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인도주의적 선행을 통해 교회가 하고 있는 훌륭한 업적을 알게 됨에 따라 교회에 대해 더 연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최근 두 지도자가 각각 템플 스퀘어를 탐방하고 교회에 관해 더 알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영부인

키르기스스탄의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과 마리암 아카예바 영부인이 템플 스퀘어



칠레의 영부인 루이사 두란 드 라고스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하고 있다.

를 둘러보고 2004년 9월 26일자 음악과 진리의 말씀 생방송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했다.

아카예바 대통령과 영부인은 유타에 머무는 동안 유타 주 오름에 있는 유타 밸리 주립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다. 그들은 세계 사회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었다. 대통령 부부는 고아원, 아동 학교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일을 도왔다.

칠레의 영부인

칠레의 영부인 루이사 두란 드 라고스가 칠레에서 행해진 많은 인도주의적 노력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 2004년 9월 21일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다.

두란 드 라고스 여사는 인도주의 센터를 돌아보기에 앞서 대관장단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안내를 맡았으며 브리감 영 대

학교에서 기증한, 칠레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컴퓨터 600대를 선사했다.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교회가 우리에게 해준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칠레에서

가장 가난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 ‘칠레 솔리다리오’의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

교회 교육 기구 영적인 모임 방송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2005년 2월 5일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매리어트 센터에서 개최될, 금년도 최초의 올해의 교회 교육 기구 영적인 모임에서 말씀할 예정이다. 모임은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방송된다.

영적인 모임은 방송 일주일 후인 2월 13일에 다른 여러 언어로 통역될 것이다. 다른 언어에는 다음과 같은 언어가 포함된다.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광둥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독일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어, 북방 중국어, 마샬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및 베트남어. ■

기사 모집

나누고 싶은 감동적인 성탄절 이야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세주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교회 잡지 독자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 또는 일반

주소로 기사를 보내 주십시오.
cur-liahona-imag@ldschurch.org
 또는 Christmas Experiences,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워드 및 스테이크(혹은 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

특별한 사람



“별로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라며 김도균 형제는 무척 쑥스러운 듯 말문을 열었다.

김 형제는 사촌형의 권유로

선교사를 만나,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981년에 성남 와드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후, 교회는 김 형제의 진정한 배움의 터전이 되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감독님이나 청남 지도자들은 제 삶의 표준이었어요. 그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싶었고 그들의 모범을 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저의 곁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랐어요. 교회에 매주 참석했고 세미나리, 상호 향상 모임, 그리고 각종 교회 봉사들이 기억납니다. 다양한 부름을 수행하면서 희생과 봉사,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부름이란 순수한 사랑이 담긴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은 제가 학업을 소홀히 해 성적이 떨어져서 감독님과 ‘성적표 접견’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배운 복음의 원리와 지도자의 사랑이 지금 저의 가족과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활동과 봉사를 하면서 사회 생활의 간접적인 경험을 미리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침례받은 후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동생 김유석 형제를 교

회로 인도하여 지금까지 함께 신앙 생활을 했다. 김도균 형제는 이런 청소년 시절이 그립다.

“재미난 추억이 많습니다. 선

교사들은 토론이 끝나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며 제 손바닥에 매직으로 ‘기’라고 써주곤 하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은 청남, 청녀 동생들에게 졸업식 선물을 사주고 싶었는데, 청소년이 무슨 큰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같은 또래들과 함께 리어카에 화장지를 싣고 팔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는 잠실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며 아들 둘(진석, 진혁)과 딸 둘(예진, 수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인 김지숙 자매와 함께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김 형제는 더이상 손바닥에 ‘기’라고 적지 않는다. 대신 마음 속에 새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들은 저를 기다리다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새근새근 잠든 아이들의 귀에 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하며 복음 안에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가족들과 함께 저 자신이 가장으로서, 신권 지도자로서 더욱 다듬어진 큰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만날 때

“귀환 선교사 모임”

선교부장님!

아들, 딸처럼 돌보았던 선교사들을
기억하십니까?

귀환 선교사 여러분! 아직 그 때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구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던 동반자.

추운 겨울 가가호호하던 그 집.

헤진 구두를 신고 길전도하던 그 마을.

격려를 나누던 동료 선교사들과

김치를 챙겨 주시던 회원들.

이제 그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005년 7월 27, 28일, 한국 대회에서 다시
만남시다!

보고 싶었던 얼굴과 그 거리를 다시 걸읍시다!

전임 선교부장과 함께하는 “귀환 선교사 모임”이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및 요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봉사했던 모든 전임

선교부장님과 귀환 선교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임 선교부장과 함께하는 “귀환 선교사 모임”

일 정: 2005년 7월 27~28일 양일간.

참가 대상자: 지금까지 한국에서 봉사했던 모든 선교부장과 귀환 선교사.

장 소: 선교부별, 선교부장별로 특정 와드(지부)에서 모임,

참 고: 초대 받은 전임 선교부장과 귀환 선교사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참석할
수 있음.

(7월 30일 오전에는 전국 합동 귀환 선교사 대회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림)

참가 등록:

1. 각 와드/지부의 귀환 선교사 담당자에게 명단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2. 와드 담당자가 스테이크 담당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3. 스테이크는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 전달한다. (홍무광: hongmk@ldschurch.org,
윤은영: yooney@ldschurch.org)
4. 한국 선교사 훈련원은 재구성한 자료를 귀환 선교부장과 신권 지도자에게
전달한다.

아직 미등록된 귀환 선교사가 있다면 각 와드/지부의 귀환 선교사 명단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귀환 선교사는 해당
선교부장이나 그를 돕는 분들에게 연락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 일정

시간	7월 27일	시간	7월 28일
2:00PM	등록 및 환영식	6:30AM	기상 - 선교 사업 재헌납의 시간
3:00PM	첫번째 모임 - 귀환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 소개 - 선교 사업 때의 추억	8:00AM	아침 식사
5:00PM	저녁 식사	10:00AM	두 번째 모임 - 소개 - 초청 연사 말씀 - 간증 시간
6:30PM	회원과 구도자가 함께하는 노변의 모임	12:00 정오	점심 식사 폐회



2. 전임 선교부장

봉사 시기	서울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대전 선교부	부산 선교부
1950년대 ~1960년대	폴 시 앤드리스 게일 이 카* 스펜서 제이 팔머*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1970년대	엘 에드워드 브라운 유진 피 털 에프 레이 하킨스			한인상 이호남*
1980년대	데이비드 시 버틀러 이도환 신호범	디 브랜트 클레멘트 김차봉* 에드워드 에이치 켄슨 도길희	홍무광	박병규 제임스 엠 하퍼 마크 에이 피터슨
1990년대 ~현재	마이클 이 니콜스 전중철 달레이 더블류 해리스 렉스 오 칼슨 브라이언 셸러스**	브루스 엠 스노우 로날드 케이 닐슨 얼 에스 스웨인 민혜기 제이 알 뱅거터 마이클 티 링우드**	로스 에이치 콜 이강우 홍병식 데이비드 린 와텔 리차드 시 라이프 노먼 알 넬로우**	서원* 리차드 더블류 허드 스티븐 알 리시먼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이세 서희철**

*는 작고한 분 표시, **는 현재 봉사중인 선교부장 표시

이곳은 문화의 밤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간증을 전하는 사람들

“문화의 밤” 공연에서 음악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열정으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첼로를 전공한 수원 스테이크 울전 와드 소속의 도부민 형제가 이번 문화의 밤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 단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연습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 및 지방에 있는 연주자들도 합류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지난 2004년 12월 24일 송년 음악회에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선보이며 그날 음악회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 현재 선교 사업을 준비하며 오케스트라의 총무와 작장을 맡고 있는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의 이달아 자매는 ‘문화의 밤’ 행사를 준비하며 한국에 참된 복음이 전해진 지 50주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흡하지만 단원들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라고 간증했다. 2005년 한국 대

회곡의 연습은 올해 5월부터 시작하며 연주 기량을 갖춘 회원들이 “문화의 밤” 공연 시 연주하게 된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희망하는 국내 전 지역 및 해외 거주 회원은 언제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격 요건과 연습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자격

1. 중학교 1학년 이상의 나이
2. 현악기 전공자 및 관악기 전공자, 혹은 전공자에 준하는 수준의 연주자(관악기 연주자는 각 파트 약간 명, 오디션 필요)
3. 기초 과정을 필한 연주자(예: 스스끼 3권 정도의 과정을 마친 사람). 단, 연습 수준에 못미쳐도 본인의 참여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습 일정

1.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신촌 와드 예배실(2층)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철저한 연습을 위해 두번의 무단 결석 시 연주회 참석 불가함.
3. 일반 클래식 곡이나 교회 노래로 연습

문의 전화: 011-414-9424(도부민 형제)



“도움의 손길” 활동

“한국 교회 헌법 50주년 및 요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도움의 손길” 사회 봉사 활동이 각 스테이크/지방부에서 계획 중이다. 이러한 취지에 발 맞추어 수원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1월 6~8일 2박 3일간 충남 태안읍 어은돌 해수욕장의 인근에서 청소년 대회를 갖는 동안 “도움의 손길” 활동을 펼쳤다. 활동으로 신권 지도자, 독신, 청소년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이 해안선이 아름다운 서해안의 어은돌 해수욕장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겨울 바다의 풍경에 청결함을 더했다.



작은 대장부가 지킨 약속

4년만에 2,200번째 대리 엔다우먼트 의식

150cm가 안되는 작은 키의 호희순 자매는 올해 83세이다. 이런 호 자매가 특별한 이유는 4년 내내 쉬지 않고 성전으로 출근하여 거의 모든 의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4년 만에 2,200번째 대리 엔다우먼트 의식”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기록을 세우던 날 호 자매는 자신이 속한 신촌 와드 회원들과 가족, 그리고 성전장 내외와 조출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녀를 지켜보았던 신촌 와드 안경찬 감독은 이런 호 자매를 “작은 대장부”라고 말했다. 이런 그녀의 노력에는 숨겨진 뒷 이야기가 있다. 2000년에 심각한 교통 사고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호 자매는 그 당시 너무나 상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신다면 장막 저편의 영의 세계에 있는 분들을 위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아 그곳에 스테이크를 하나 조직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다부진 약속을 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의식에 참여한다는 목표로 2001년 1월 첫 주부터 대리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 강서구 발산동의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여 성전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전셋집으로 이사했고, 있는 힘을 다해 지난 4년 동안 특별한 개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의식에 참여했다. “제가 성전 방문을 통하여 깊이 배운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막을 통과할 때 제가 대신 의식을 받고 있는 돌아가신 분들의 영이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시다. 저는 또한 돌아가신 선조들의 많은 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약한 체력

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 주님의 사업은 아무리 행해도 지지 않으며 설사 지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곧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호희순 자매는 2001년 420명, 2002년 529명, 2003년 583명, 2004년 12월 29일까지 668명의 대리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았다. 60이 넘어 개종한 호 자매의 자녀들은 모두 충실한 말일성도로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고 손자 셋, 손녀 둘이 있으며 모두 선교 사업을 했다.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여 년을 넘게 혼자 지낸 그녀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그 곳에서 노년을 보낼 계획이다.



축하해 주는 와드 회원들과 꽃다발을 들고 있는 호자매

사법시험 합격

법무부는 2004년 제46회 사법 시험 최종 합격자 1009명(2차 합격자)의 명단을 지난 2004년 12월 23일에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소속인 김재진 자매와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의 한중훈 형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음이 밝혀졌다. 김 자매는 강남 와드 김홍배 형제와 임동숙 자매의 차녀로서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4년간 장학생으로 대학에 다녔다. 제헌절이 되면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는 그녀는 사법 시험 합격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전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한중훈 형제는 슬하에 2명의 자녀(동민, 동현)가 있는 가장으로서 합격자 발표일에도 평소처럼 부인인 이윤경 자매와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학원 강의를 나가면서 사법 시험을 혼자서 준비했다.



김재진 자매와 부모님



한중훈 형제와 그의 가족

“우리는 가족 선교사예요”

성공적인 회원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 서울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최근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에서는 “가족 선교사”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가족 선교사’는 전임 선교사나 와드 선교사처럼 정식 부름이 아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2달 동안 수행하는 선교 활동은 타인뿐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좋은 방안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오리건 주의 세더 밀 스테이크 스카이라인 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하던 신용인 형제(현 분당 와드 소속)의 인도로 2002년에 실시된 적이 있다. 당시는 교회 방침이 변경되어 스테이크 선교부 조직이 없어지면서 감독이 와드 선교 사업을 직접 책임지도록 바뀐 시기였다. 이에 감독단은 350여 명의 활동 회원들이 선교 사업의 책임을 골고루 나누어 수행하자는 목적으로 “가족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와드 선교사로 정식 부름을 받은 회원들 이외에도 몇몇 가족들이 “가족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회원들은 2~3년에 한번씩 이러한 가족 선교사로 봉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분당 와드에서는 송재근 감독의 주관 아래 지난 2004년 5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가족 선교사는 가족 단위로 활동하며, 한 기간에 4가족에게 부름을 준

다. 올 1월을 기해 제5기의 가족 선교사들이 바톤을 넘겨 받았고, 지금까지 총 20 가족이 봉사했다. 이러한 가족 선교사들은 ‘구도자와의 토론, 가정의 밤 초대, 물몬경 전달, 선교 사업에 대한 기도’ 등을 통해 와드 선교사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와드 선교사와 다른 점은 다섯 살 된 손녀부터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선교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감독단은 가족 단위로 부름을 주면 구도자를 가정의 밤이나 식사에 초대하기 쉽고 그들에게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라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교 책임자인 이강배 형제는 가족 선교사로 봉사하는 회원들을 지켜보며, “가족이 함께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고, 가족 단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족 선교사들은 전임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도자를 찾고 돕게 됩니다.”라고 간증했고, 송재근 감독은 “가족 선교사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회원 개개인의 신앙이 커지고 교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족 선교사 프로그램과 와드 선교사의 체계적인 활동으로 2004년 12월 말까지 26명의 침례가 나왔으며 지난 2004년 9월에는 9명이 한꺼번에 침례받는 결과도 낳았다.



가족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당 와드의 회원들과 전임 선교사

풍성한 주 은혜로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772번지 구모라 농원, 이곳은 제주 지방부 서귀포 지부의 유종석 형제와 아내 김계월 자매의 생의 터전이자 세 아들인 성욱(8세), 태욱(6세), 민욱(4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세일즈에서 택시 운전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업에 종사해 보았지만 이제는 이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유 형제는 믿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한 감귤 농원, 처음부터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부부의 성실함과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랑의 힘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구모라 농원에서 생산되는 감귤들은 하나같이 못난이입니다. 어찌 그리 못났는지 하나같이 까만 주근깨 투성이입니다. 친환경 자연 농법으로 꿀을 재배해서 매끈한 외모는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는 감귤이라고 부부는 자신합니다.

최근에 유종석 형제는 서귀포 지부의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다. 20여명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지부이지만 젊은 지도자로서 유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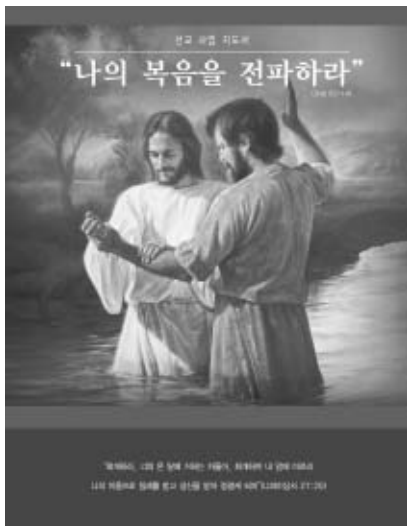


는 회원 확보와 가정 복음에 대한 포부가 큼니다. 그리고 선교부장님과 지방부장님을 지지하고 그 분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제주 지방부 회원들은 1년에 한 번 밖에 성전 참석을 계획하지 못하지만 이들 부부는 성전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전 결혼을 통하여 지상으로 데려온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또한 3월이면 함께 할 넷째 자녀에 대한 축복도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는 유종석, 김계월 부부는 구모라 농원에서의 미래를 계획하며 두 눈을 반짝입니다.

새로운 선교 사업 지도서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치는 선교사와 배우는 구도자 모두가 영의 인도를 느끼는 것,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대관장단이 지난 2002년 11월 언급한 내용이다.

그 후, 다음 해인 2003년부터 단순 암기식의 토론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지난 2004

년 중순 마침내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세심하게 기술된 새로운 선교사 지도서를 준비했다. 230쪽에 걸쳐 이전의 교회 책자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색깔로 단장한 이 책의 이름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이며 대관장단이 언급했듯이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살아있는 선교 사업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소개되자

많은 회원들은 1930년 최초의 선교사 토론책이 만들어진 이래로 선교 사업 분야의 가장 역동적, 진보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전에 선교사 훈련원에서 사용했던 총 676쪽에 달하는 자료를 230쪽의 한 권의 책으로 집약했다. 1장과 2장에서 소개되는 “선교 사업의 목적, 효과적인 복음 공부 방법”에 이어, 3장에서는 새로운 개종자와 구도자에게 가르쳐야 하는 “회복,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명, 율법과 의식”을 주제로 5가지 토론이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영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길이로 순서를 바꾸어가며 토론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방법을 소개하며, 구도자의 관심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복음 정보도 들어있다. 또한 선교사들이 주님의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시간 관리 방법도 제시한다.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만약 이 가르침을 계속 숙지한다면 “선교사들이 가르칠 때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소개했고 한국에서는 각 선교부별로 스테이크/지방부 및 와드/지부 역원을 위한 특별 훈련이 1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

김호직 박사 추모 음악회 관련 소식 처치 뉴스에서 소개



지난 2004년 11월 20일자 처치 뉴스에 “고 김호직 박사의 제 45주기 추모 음악회”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고 김호직 박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던 이 모임은 2004년 8월 29일 안식일 저녁,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에서 열렸다. 이 기사는 그 날 모임의 전체적인 내용과 이후 서울시 강북구청장과의 간담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소개했다.(2004년 10월호, 지역소식, 14쪽 참조)

SBS 텔레비전 프로그램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에서 미국 말일성도 가정 소개

지난 1월 7일 SBS 방송에서는 오전 9시부터 30분간 미국 유타주의 교회와 행복한 말일성도 가정의 생활 모습을 방영했다. “특별한 가족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템플 스퀘어 테버내클 내부를 소개하는 한편 엄격한 규율과 교육열로 유명한 프로보브리감 영 대학교를 소개하며 유타주는 “물몬교의 본고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전통 액자와 탈 등으로 꾸며진 마크 에이 피터슨 형제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입양한 한국인 두 딸 조이(11)와 로렐(14), 그리고 교환 학생으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안가영(17) 자매가 피터슨 형제 내외와 함께 어떻게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소개했다. 매일 아침 7시에 가족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경전을 읽는 가족의 모습, 책임감을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특별한 교육 방침, 아내의 취미인 가족 계보 사업, 월요일마다 행복을 나누는 “가정의 밤” 등 그의 가족을 통해 말일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부활절에 볼 만한 영어 비디오 - Easter Dream



이 비디오는 갑작스럽게 아빠를 잃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소년(제이슨)이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서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이슨은 할아버지의 말씀과 자신의 꿈을 통해 구세주께서 인간을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와 자신이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언젠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서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간증을 얻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영어 학습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상영 시간: 22분. 가격: 3,900원.

새로 헌납된 교회 건물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주소: 서울 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93-11

준공일: 2004년 9월 24일 헌납일: 2004년 11월 20일

건축 면적: 250.52㎡ 연면적: 513.28㎡

대지 면적: 1,099㎡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40-1

준공일: 2004년 10월 7일 헌납일: 2004년 12월 23일

건축 면적: 341.7㎡ 연면적: 742.62㎡

대지 면적: 1,741.1㎡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부산 서 지방부

영도 지부장: 장인택 (전임: 김재영)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



김연정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유타 템플 스퀘어
선교부



박정자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유타 템플 스퀘어
선교부